

기 | 조 | 발 | 제

전남지역 친환경유기농업의 발전과
대학의 역할

박 노 동 | | 전남대학교
친환경농업연구사업단



전남지역 친환경유기농업의 발전과 대학의 역할

박노동*

1. 친환경농업의 정의와 분류

1) 친환경농업의 정의

- 농업과 환경의 조화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유도해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환경을 보전하면서 농산물의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농업을 말한다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조).
- 친환경농업은 생태계의 물질순환시스템을 활용하여 농약안전사용관리(IPM), 작물양분종합관리(INM), 천적과 생물학적 방제기술의 이용, 윤작 등을 실천하여 농업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전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2) 친환경농업의 분류

- 유기농업(Organic Agriculture)과 저투입농업(Low Input Sustainable Agriculture)으로 구분한다.
- 유기농업은 화학비료, 유기합성농약, 가축사료첨가제 등 합성 화학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유기물과 자연광석 등 자연적인 자재만을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 저투입농업은 병해충종합관리(IPM)기술 실천으로 농약사용량을 절감하고, 작물양분종합관리(INM)기술 실천으로 화학비료 사용량을 절감하는 등 합성화학물질의 사용을 최소화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작물병해충종합관리(IPM: Integrated pest management)
 병해충의 발생량을 정밀 예찰하여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낮은 수준에서 관리하여 농약의 과다사용을 억제하고,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지속시켜 생산효율을 극대화하는 방법

* 전남대학교 교수, 친환경농업연구사업단 단장

작물양분종합관리(INM: Integrated nutrient management)
작물생육에 필요한 양분중 자연이 공급해 주는 양을 제외한 부족한 양을 토양검정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비료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생산 유지와 환경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

2. 친환경농업의 목표와 방향

1) 친환경농업의 육성 목표

- 2013년까지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40% 절감
- 2010년까지 친환경인증농산물 비율 10%로 확대
- 경종과 축산이 연계되는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체계 구축

2) 친환경농업의 육성 방향

- (1) 농업과 환경의 조화를 통한 자연순환형 농업 정착
 -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이용 방안과 자원화 모색으로 농경지에 투입되는 화학자재량을 감소하고 농업환경오염 부하 최소화
 -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육성
- (2) 고품질 안전 농식품 공급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소비자들의 안전 농식품 수요 증대에 부응하여 안전 농산물 공급으로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
 -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는 소비자들의 친환경농산물 신뢰에서 출발
- (3) 친환경농업을 통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향상
 - 값싼 수입농산물과 가격 경쟁력에서는 한계가 있으며 품질과 안전성을 기본으로 한 친환경농산물로 수입농산물과 경쟁
- (4)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 증대와 수익성 유지
 - 우리 농업 전반으로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서는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와 소득보전방안 마련 중요
- (5) 농업 환경자원의 환경친화적 관리로 국토환경보전 기여
 - 이제 농촌은 농업인만의 공간이 아닌 전 국민의 휴식 공간
 - 주5일제와 1사1촌 결연 확대로 도시와 농촌의 연계 기회 증가
 - 농업 환경자원의 환경친화적인 관리를 통한 물질균형 달성

3. 국내외 동향 및 추진배경

1) 새로운 농업협상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 DDA · FTA 확산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의 확대로 본격적인 국제경쟁 시대에 돌입
- 중국의 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 등 동북 3성 및 산둥성을 중심으로 녹색식품(Green Food)의 대대적인 생산에 따른 능동적인 대책마련 필요

2) 환경보전 및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

- 농약 및 화학비료의 과용으로 환경오염과 잔류농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위협
- 세계적으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환경보전을 전제로 한 농업기반 구축
- 국민소득수준 향상과 참살이 열풍의 확산으로 최고의 품질경쟁력을 갖춘 안전농산물 생산이 필수

4. 전라남도의 친환경농업 여건

1) 천혜의 자연환경 및 인적자원 확보

- 우리 지역은 오염원이 적은 반면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비옥한 농토 등 친환경농업에 유리한 자연환경 보유
- 친환경농업을 실천해 온 전문가가 많아 초기정착이 용이하며, 친환경농산물 소비량 지속적 증가

2)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한 전남농업의 활로 모색

- 친환경농업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친환경농업을 통해 미래 전남농업의 새로운 활로 모색

5. 전라남도 농업정책의 방향

최근, 전라남도 농업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으로서 비전에 대한 설정은 “할 맛 나는 농업, 살 맛 나는 농촌”으로 설정하고 5대 핵심정책을 제시하고 있다(그림 1). 또한, 5대 핵심정책에 대한 중점 추진전략은 표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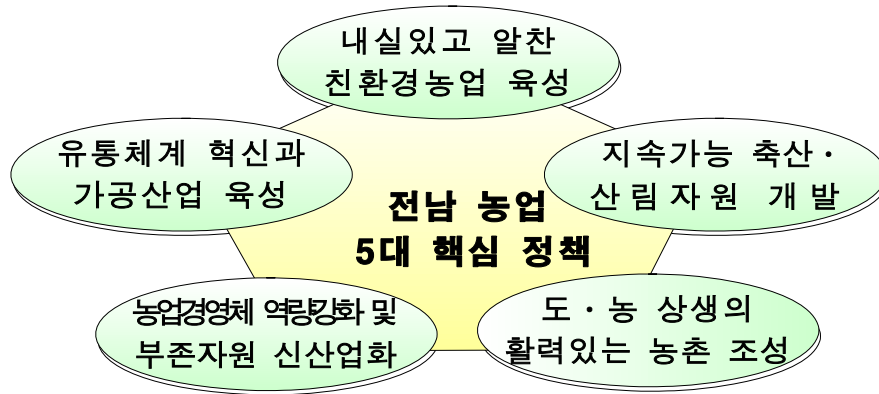


그림 1. 전라남도 5대 농업핵심 정책

표 1. 전남농업 5대 핵심정책, 중점 추진전략

5대 핵심정책	중점 추진전략
내실있고 알찬 친환경농업 육성	친환경농업 부가가치 향상 기반 구축 전국 최고의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판매 소득유망 전략품목 발굴·육성 농업생산기반 정비 및 농업용수 안정 확보
유통체계 혁신 및 가공산업 육성	유통채널 다양화와 직거래 활성화 산지 유통시설 확충 및 물류 효율화 전통 남도음식 외식 산업화
농업경영체 역량강화 및 부존자원 신산업화	품목별 생산자 조직화·규모화 후계 농업인력 육성 및 경영능력 배양 가용자원의 최적 이용 및 신산업화
도·농 상생의 활력있는 농촌 조성	도·교류 확대 및 농업정보화 촉진 농업인 생활안정과 영농활동 지원 강화 입체적인 농업·농촌 활력회복 계획 추진
지속가능 축산·산림자원 개발	친환경 축산 기반 구축과 소비처 확대 가치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산림조성·관리

이처럼 최근 전남의 농업정책의 방향은 과거의 생산중심의 1차 농업을 탈피한 2차 3차농업의 농정으로 전환,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농업경영체의 역량강화 핵심주체인 임원의 경영마인드 향상과 생산에서 판매까지 경영 전반에 걸쳐 능력있는 우수인적자원을 확보하고자 농산물 마케팅 기법과 경영능력 배양 전문교육 실시(2008년도 계획은 농식품 마케팅전략 및 상품성 향상 교육 : 200명, 농기업 경영체 경영마인드 교육 : 40명) 및 리더십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농업경영체 임원 양성(품목별 리더양성 교육 : 14개품목, 280명, 농업정보 활용능력 교육(홈페이지, 전자상거래 등) : 330명)에 집중 지원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6. 전라남도의 추진실적 및 성과

1) 추진계획

- '07까지 인증목표 : 49,000ha(경지면적의 15%)
 - '05) 5% → '06) 10% → '07) 15% → '08) 25% → '09) 30%
- '07까지 화학비료, 농약사용량 매년 5% 감축
 - 화학비료 : '04) 375kg/ha → '07) 319kg/ha
 - 농 약 : '04) 12.4kg/ha → '07) 10.5kg/ha

2) 추진실적('07년 말)

- 인증면적 : 65,619ha(계획 49,000ha대비 134%)
 - 인증단계별 : 유기 1,476ha(2%), 무농약 10,591(16), 저농약 53,552(82)
 - 전국 인증면적 122,882ha의 53.4%, 경지면적 313,408ha 대비 20.9%

표 2. 친환경농업 연도별 인증면적 추이

인 증 \ 년 도	2004	2005	2006	2007
저농약	2,650 (0.9)	10,865(3.3)	23,871(7.4)	53,552(17.1)
무농약	991 (0.3)	2,210(0.7)	4,180(1.3)	10,591 (3.4)
유기농	416 (0.1)	697(0.3)	1,380(0.4)	1,476 (0.4)
계	4,057ha(1.3%)	13,772(4.3)	29,431(9.1)	65,619(20.9)

참 고 : 2007 전국 인증면적/ 122,882ha

- ▶ 단계별 : 유기 9,729ha(8%), 무농약 27,288(22%), 저농약 85,865(70%)
- ▶ 시도별 : ②경북 15,682ha(5.5%), ③강원 5,487(4.8), ④경남 7,323(4.3)
 ⑤제주 2,225(3.9), ⑥전북 7,974(3.8), ⑦충북 4,012(3.2)
 ⇨ 전국대비 우리도 점유율 : '04) 14% → '07) 53%

3) 주요성과와 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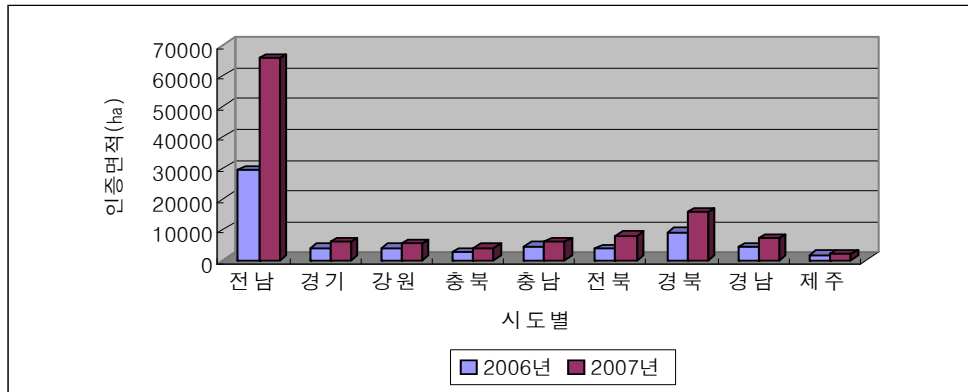
가. 주요성과

- 친환경농업으로의 정책전환에 대한 공감대 형성
 - 농업정책 방향을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한데 대해 각계각층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 정부의 농업정책기조의 변화에 따라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

- 친환경농업 실천 필요성 인식 및 자신감 고취
 - 선도농가 및 농업인들의 실천의지가 결집되고, 유관기관·단체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친환경농업 크게 신장
 - 농법별 시범포 운영, 도우미제 실시 등 철저한 기술 지도를 통해 신규 실천 농업인에게 자신감 배양
- 전통문화 계승과 공동체의식 함양
 - 마을별로 단지를 결성하여 연대의식 및 협동심 강화
 - 공동작업·공동생산으로 영농비용 절감 및 시장 교섭력 확대
- 생태환경 복원
 -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우렁이, 미꾸라지 등 먹이 증가로 철새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
 - 생태환경 복원에 따른 메뚜기, 잠자리 등 곤충 개체수 증가
 - 3년 이상 무농약 실천단지에 황산적거미, 노린재류 등 해충의 천적이 발생하여 자생력 생성
 - 토양 내 염류농도는 감소한 반면, 유효인산 함량은 증가추세
- 『친환경농업 = 전라남도』의 이미지 확산
 - 친환경농업 육성의지를 평가받아 '05년에 농림부와 환경부가 공동 주관하는 『친환경농업대상』을 수상하고, '07년에는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주관한 『친환경경영대상』을 수상
 - 야후, 구글, 다음 등의 인터넷 검색창에서도 친환경농업 하면 우리도의 소식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표 3. 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 (단위 : ha, %)

시도	'07 인증실적				경 지 면 적 (b)	'06 실적 (c)	대 비		순위 (a/b)
	계(a)	유기	무농약	저농약			a/b	a/c	
계	122,882	9,729	27,288	85,865	천ha 1,782	74,995	6.9	164	
전남	65,619	1,476	10,591	53,552	313	29,431	20.9	223	1
경기	6,117	1,251	2,072	2,794	191	5,173	3.2	118	7
강원	5,487	1,215	2,912	1,360	115	4,668	4.8	118	3
충북	4,012	595	1,442	1,975	124	3,671	3.2	109	7
충남	5,987	1,750	1,198	3,030	246	4,966	2.4	121	9
전북	7,974	897	2,997	4,080	210	5,932	3.8	134	6
경북	15,682	715	3,024	11,943	284	11,597	5.5	135	2
경남	7,323	526	1,439	5,358	169	6,008	4.3	122	4
제주	2,225	1,168	804	253	57	1,523	3.9	146	5
기타	2,456	136	809	1,511	73	2,026	3.3	121	



나. 반성(미흡한 점)

- 민간주도의 친환경농업 실천역량 취약
 - 농업인의 자율적인 실천의지가 약하고, 보조사업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등 농업인들이 의타적임
 - 친환경농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으로 능동적인 참여가 부족한 경향임
- 농법 및 농자재에 대한 체계적인 정립 미흡
 - 농자재에 대한 효과 검증 및 유통망이 체계화되지 않아 지역별 가격 진폭이 심하여 수급여건이 어려움
 - 친환경농자재의 난립으로 실천농가들이 선택에 혼선을 겪고, 돌발병 해충인 벼멸구 등의 발생으로 인해 일부농가 중도포기 및 수확량 감소 초래
- 친환경농산물 인증품목의 다양화 및 특성화 미흡
 - 쌀인증면적이 전체인증면적의 61%를 점유함에 따라 과실, 채소 등 원예특용작물의 인증실적 저조
 - ※ 품목별 인증 점유율 : 쌀(61%), 채소특작(15), 과수(12), 기타(12)
 - 고부가가치 창출에 필요한 지역특산품의 인증실적이 낮은 편으로 특성화 미흡
- 유통대책 및 판로확보 미흡
 - 지역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보 미흡으로 생산물의 적기 출하에 어려움을 겪고, 저농약 농산물의 경우 가격차별화가 낮은 편임

6. 전라남도 2008년 추진계획

1) 추진계획

가. 인증목표 : 79,000ha(경지면적 313,408ha의 25%)

- 작물별 : 벼 38,700ha(49%), 채소·특작 15,800(20), 과수 13,400(17), 기타 11,100(14)
 - 단계별 : 유기농 3,950ha(5%), 무농약 27,650(35), 저농약 47,400(60)
 - ※ <2008. 3. 31 현재 실적> : 69,397ha(경지면적의 22.1%)
 - 작물별 : 벼 41,422ha(60%), 채소·특작 12,099(17), 과수 7,686(11), 기타 8,190(12)
 - 단계별 : 유기농 1,984ha(3%), 무농약 11,788(17), 저농약 55,625(80)
- 나. 화학비료·농약 사용량 25%이상 감축
- 화학비료 : ('04) 375kg → ('08) 281kg/ha(성분량 기준)
 - 농 약 : ('04) 12.4kg → ('08) 9.3kg/ha(")

2) 추진방향

- 무농약 이상 인증단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 2010 저농약 농산물 인증 폐지대비 인증단계 상향 조기대책 추진
-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보 및 소비촉진
 - 책임운영 모델 조기정착 및 학교급식 확대 등 소비기반 확충
 - 친환경농산물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
-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농가 및 인증기관 지도감독 강화
 - 친환경농업 지도자 육성 등 민간 자율관리체계 구축
 - 소비신뢰 제고를 위한 정예화 된 거점 인증기관 중점 육성

3) 중점 추진사항

가. 무농약·유기농 인증확대

인증단계 목표상향

- 무농약인증 : ('07) 16% → ('08) 35% - (19%증)
- 유기농인증 : ('07) 2% → ('08) 5% - (3%증)

중점 추진대책

< 생산분야 > - 인증단계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 차등지원
 - ha당 저농약 100만원/3년, 무농약 140만원, 유기농 160만원/5년
 - 지원대상단지 선정시 무농약 이상 단지 우선 지원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차등지원
 - 실 인증비용의 70% 보조 → 저농약 60%, 무농약 이상 70% 보조
- 친환경농업 관련 각종 지원사업 무농약 이상 단지 우선 지원
 - 친환경농기계 시설지원(상온통풍 건조저장시설 메뉴 포함)
 - ☞ 3년차에 접어드는 친환경농업단지는 반드시 무농약 이상 인증획득
 - 2010년 저농약농산물 인증제도 폐지에 대한 대비
- 〈 유통분야 〉 - 새로운 시책 적극 개발 판로대책 강구
 - 전문유통업체, 대규모 소비자 등과 사전 계약재배로 판로확보 및 적정가격 보장(친환경농산물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 무농약 이상 규모화 된 단지에 저장·가공시설 등 우선 지원

나. 친환경농산물 인증품목 다양화 방안

□ 친환경 잎채소 인증 확대

- 재배현황
 - 재배면적 : 14,075ha(전국 재배면적의 24%) - 생산량 : 790천톤
 - 인증면적 : 705ha(재배면적의 6%)/유기 33, 무농약 118, 저농약 554
- 친환경농업 실천상황
 - 잎채소 중 친환경 인증면적이 조사된 품목을 분석한 결과, 재배면적 대비 인증실적은 5.6% 수준으로, 우리 도 전체 인증실적(경지면적 대비 20.9%) 보다 15.3%로 저조
 - 상추(15.6%), 미나리(14.9)는 비교적 높은 반면, 그 외 작물은 아주 저조
- 친환경농업 실천 확대방안
 - 지역별 특화품목 및 품목별 주산지 중심으로 단지화 유도
 - 원예작물 천적해충 방제를 위해 작물별 컨설팅 및 기술지도
 - 주기적인 토양검정을 통한 시비처방서에 따라 토양환경에 알맞은 토양개량 지도

□ 친환경 산나물 인증 확대

- 재배현황
 - 재배면적 : 1,028ha(고사리 339, 취나물 227, 더덕221, 두릅166, 도라지67, 죽순 8)
 - 인증면적 : 314ha(재배면적의 34%)/유기 30, 무농약 266, 저농약 18
 - 고사리 129, 두릅 111, 더덕 37, 취나물 23, 도라지 8 등

○ 확대재배 방안

- 산간지역의 영농조건이 불리한 농경지나 야산에 산나물 확대재배
- 산나물의 친환경적 집단재배·관리로 인증 획득
- 광역·소규모 친환경농업단지 사업비 및 지역특화 사업비와 시군 자체사업비 적극 활용 지원
- 도시민 체험행사 등과 연계 친환경농산물 판로대책 강구

다.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신뢰확보

□ 현 황

-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은 매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소비자 신뢰를 받지 못해 재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할 경우 소비자로부터 불신을 초래 우려
- 소비자 대부분이 친환경농산물을 믿을 수 있다면 가격이 36% 비싸도 구입하여 먹겠다고 응답, 응답자의 53%가 안전성에 관심

□ 추진대책

①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농업인 의식교육

- 도단위 순회교육
 - 기 간 : 2007. 11~2008. 1월
 - 인 원 : 4,400명(친환경농업 단지대표, 공직자 등)
 - 교육내용 :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의 의식전환을 통한 소비자 신뢰 구축의 필요성 및 소비자가 원하는 친환경농산물

○ 시군단위 자체교육

- 기 간 : 2008. 1 ~ 2008. 3월
- 인 원 : 50,000명(친환경농업인, 단지대표 등)
- 교육내용 : 마을단위 단지별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대책 등

②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 강화 : 6개기관 960백만원

- 정예화 된 민간인증기관을 도내 거점인증기관으로 육성
 - 인증관리 소홀로 적발된 인증기관은 패널티 적용
- 친환경농업 지도자 육성 : 110명(시군당 4~6명)
- 친환경농업 도우미 운영 : 2,254명(시군별·품목별)
- 친환경농업 메신저 운영 : 100명(시군당 4~5명)

③ 소비자초청 체험행사 확대 : 4천명

- 대도시 소비자를 친환경농업 현장에 초청하여 생산과정 직접 체험토록 하여 신뢰도 제고 및 직거래 활성화
- 대도시 학교급식 학교 초·중·고학생 친환경농업 관련 백일장, 사생대회 등 체험활동을 통한 공감대 형성 등

라.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보 및 소비촉진

- 지역농협, 전문유통업체 등과 연계하여 생산에서 유통까지 일괄 책임경영 하는 책임운영모델 조기정착 유도
- 전문유통업체, 대규모 소비처 등과 사전 계약재배와 친환경농산물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통해 적정가격 보장 및 판로 확보
- 학교급식 확대, 가공식품 개발 등 소비촉진을 통한 안정적 소득기반 구축

4) 주요사업 추진계획

(1)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및 교육 홍보

①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향상과 신뢰확보 대책 추진

- on-off라인 활용 홍보전시관 운영 : 60백만원
 - 월간 친환경, 오마이뉴스 광고, 사례집 제작, 디카사진 공모전 등
- 대도시 소비자초청 체험행사 : 6천명, 2억원
- 재배기술 및 농가의식 교육 : 50천명(농업인, 담당공무원, 소비자)
- 친환경 생태연못(뚝방) 조성 : 10개소, 3억원

② 민간인증기관 역량 강화 및 친환경농업 연구 활성화

- 민간인증기관 육성 : 9개소
- 친환경농산물 인증 거점인증기관 지원
 - 기관당 1.6억원 한도내 인증 수수료 차액 지원
- 국제공인 유기농산물 인증기관 지정 추진 : 전남대학교
- 전남대 친환경농업 연구센터 건립 : 연구동, 5,900㎡, 120억원
 - 친환경 농자재 검증과 새로운 생물약 연구개발

③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운용 : 40억원(연리 2%)

-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관련 농업인 및 단체
- 유통업체 가맹점 입점자, 친환경 농자재 생산업체
- 융자한도 : 개인1억원, 생산자단체, 농자재 생산업체 5억원, 유통업체 입점자 10억원

- ④ 친환경농업 상호공제 시범사업 성과분석 확대 추진
 - 시행방법 : '06~'08까지 시범사업 추진 후 '09부터 본사업 시행
 - 사업비 : 4억원
 - 대상 : 무농약 이상 실천단지 중 희망단지
 - ※ 금년에는 수도작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 사업내용 : 친환경농업 실천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분 일부보조
 - 운영재원 : 공제료(도비 50%, 자담 50%), 손실보상금 부족액 (도비)
- ⑤ 친환경농산물 통합시스템 운영
 - 사업기간 : 2007. 11~
 - 사업비 : 1식, 50백만원
 - 사업내용
 - 작물별, 시기별 생산량, 인증단계 등 다양한 조건별 검색
 - 관리자(인증농가, 작목반, 농협, 시군담당자 등) 및 유통업체, 소비자 모두가 접속하여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운영 : 무농약 이상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운영 후 점진적으로 확대
- ⑥ 푸른들가꾸기사업 추진
 - 사업량 : 78천ha(여수시 등 21개 시군) - 전국 135,467ha의 58%
 - 사업비 : 10,184백만원
 - 파종시기 : 9~10월중(자운영 : 벼 수확 15일전)
 - 파종량 : 자운영·헤어리벳치 40kg, 호밀 150kg, 클로버 20kg
- ⑦ 토양개량제 공급
 - 사업량 : 104천톤(규산 64, 석회 40)
 - 사업비 : 10,779백만원(100% 보조)
- ⑧ 유기질비료 지원
 - 사업량 : 382천톤
 - 사업비 : 32,490백만원(국비 22,170, 시군비 10,320)
- ⑨ 폐비닐 수거비 지원
 - 사업량 : 11,775톤(여수시 등 21개 시군)
 - 사업비 : 353백만원(국비 100%) - kg당 30원 정액지원
 - 사업내용 :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의 수거 활성화를 위해 수거비 지원

(2) 재배 및 생산분야

①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 사업량 : 12개소
 - 사업비 : 7,088백만원(단지당 4억원 ~ 8억원)
 - 국비 1,890(27%), 도비 945(13), 시군비 2,835(40), 자담 1,418(20)
 - 지원대상 : 10농가 이상 참여하여 10ha 이상 농경지를 집단화 시켜 친환경농업지구로 신설이 가능한 지역
 - ※ 기 지원받은 단지에 대해서도 추가지원 가능
 - 사업내용 :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장비,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 시설·장비 등
- ②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 사업량 : 424ha(여수시 등 17개 시군)
 - 사업비 : 3,060백만원
 - 재원별 : 보조 1,836백만원(60%), 자담 1,224(40%)
 - 지원대상 : 농업인, 영농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대상품목 : 포도,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고추, 오이, 멜론, 수박, 참외
 - ※ 지원단가(ha) : 포도 5,100원, 딸기 6,000, 오이 7,200, 파프리카 13,000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작물의 해충방제를 위해 국내에서 생산·보급되는 천적구입비 일부 지원(농가별 3년 지원)
- ③ 유기농 전문단지 조성(신규)
- 사업량 : 10개소(순천시 등 10개시군)
 - 사업비 : 1,000백만원(도비 200, 시군비 500, 자담 300)
 - 개소당 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내용 : 유기농 실천에 필요한 농기자재 및 시설지원
 - 보조비율 : 농자재 80%, 농기계 및 시설 60%
 - 지원대상 : 벼, 밭작물 등 유기농 인증이 가능한 모든 작물
 - ※ 기존의 유기농 실천규모를 확대하거나 무농약에서 유기농단계로 상향할 수 있는 단지에 지원
- ④ 정부지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 사업기간 : 2007 ~ 2008년/2년
 - 1년차 : 사업계획 수립, 설계, 일부 장비구입 및 시설착공 등
 - 2년차 : 기타시설, 장비의 설치 및 사업마무리 등
 - 총사업비 : 100억원(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20, 자담 10)
 - 사업주최 : 장흥광역친환경농업법인(대표 : 용두농협장 이학준)
 - 단지규모 : 2,200ha(참여농가 1,746호)
 - 사업내용 : 경축자원화센터, 친환경 벼 저온저장시설, 유통시설, 광역

친환경자재 살포기, 조사료 수확기, 측사 등

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 사업량 : 23,000ha(단지당 10ha 이상 규모)
- 사업비 : 32,200백만원(도비 9,660, 시군비 22,540)
 - 단지조성 사업비 기준 : 2,000천원/ha(인증단계별 보조차등)
 - 저농약 50%(100만원/ha), 무농약 70%(140), 유기농 80%(160)
- 사업내용 : 잡초, 병해충방제 등에 필요한 친환경자재 지원
- 지원대상 : 벼, 밭작물 등 친환경인증이 가능한 작물 재배농가
 - 들녘, 마을단위 규모화 가능하고 실천의지가 강한 지역 우선

⑥ 친환경농기계·시설지원

- 사업량 : 68개소(시군당 1~7개소)
 - 농기계·시설 : 66개소
 - 신규사업 : 2개소(친환경공동육묘장, 폐왕우렁이 재활용시설)
- 사업비 : 4,000백만원(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개소당 50백만원
- 사업내용 : 친환경농업 실천에 필요한 농기계·시설 자율선택

⑦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 사업량 : 15천건
- 사업비 : 4,500백만원(인증비용 4,368, 감시원활동비 132)
 - 도비 900백만원(20%), 시군비 2,250(50%), 자담 1,350(30%)
- 사업내용 : 인증수수료, 출장비, 잔류농약·토양·수질분석에 필요한 실험소요 비용과 명예감시원 활동비 지원
 - 시군의 예산형편에 따라 친환경축산물 인증비용 지원 가능
- 보조비율 : 무농약 이상 70%, 저농약 60%
 -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농관원) : 369천원/건

⑧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 사업량/사업비 : 30천ha/90억원(국비)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지급기준
 - 지급기간 : 3년 또는 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
 - 농가당 지급한도 : 0.1~5.0ha
 - 지급단가 : 《밭》 유기 794천원/ha, 무농약 674, 저농약 524
《논》 유기 392천원/ha, 무농약 307, 저농약 217
- ⇒ 친환경농업 실천여부 이행점검(5. 20~9. 30) 후 지원대상자 최종 확정

(3) 유통 및 관측사업 지원

- ①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
 - 사업량 : 25,920톤(1,296천포/20kg) - 전남쌀 생산량의 3% 수준
 - 사업비 : 1,750백만원(도비 350, 시군비 1,400), 1포당 1,350원
 - 사업내용 : 타시·도 거주자의 전남 쌀 구입비 택배비 지원
- ②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 지원대상 : 2,377개소(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특수)
 - 사업비 : 59,621백만원(도비 18%, 시군비 42, 자담 40)
 - 지원내용 : 급식에 사용되는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쌀, 채소, 과채류 등)로 대체하기 위한 구입차액 지원
 - 지원방법 : 학교에서 주문한 농산물을 시군에서 구입하여 현물로 공급하되, 도서벽지·소규모 학교 등 현물공급이 어려운 경우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결정 후 현금지원 가능
- ③ 그린투어리즘 실시 : 1억원
 - 사업비 : 105백만원(도비 50%, 시군비 50)
 - 추진대상 : '07년도에 결연한 21개 마을 중 지속 희망하는 마을과 신규마을
 - 추진방법 : 대도시 아파트 부녀회와 농·어·산촌 자연마을의 1:1 결연
- ④ 미곡처리장 완전미 생산시설
 - 사업량 : 4개소
 - 사업비 : 1,200백만원(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사업내용 : 완전미 생산시설, 위생시설 설치 등
 - 지원시설 : 완전미 생산 시설장비구입비 및 설치비, 공장내 위생시설 장비 설치비 등
- 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 설치대상 : 여수 등 21개 시군 - 133동(3평 기준)
 - 사업비 : 998백만원(도비 20%, 시군비 30, 자담 50)
 - 1동당 3평 기준 7,500천원
 - ※ 예산범위 내에서 농가당 10평까지 지원 가능
 - 사업내용 : 10평 이하 규모의 컨테이너·판넬식 저온저장고 설치
- ⑥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 사업량 : 7개소
 - 사업비 : 7,894백만원(국비 3,196, 지방비 2,368, 자담 2,330)

○ 사업내용

- 건 물 : 집하·선별·포장장, 예냉·저온저장고, 사무실 등
- 기 계 : 선별기, 결속기, 컨베어 등
- 장 비 : 지게차, 수송차량, 파렛트 등

(4) 친환경농업대상 시상

- 중앙시상 : 우수지자체, 우수마을, 인증농산물 생산자, 유통업체 등 4개 부문을 대상으로 매년 말 시상
- 도 시 상 : 2개 분야, 12점
 - 자치단체분야 : 6점(최우수 1, 우수 2, 장려 3)
 - 상사업비 : 1,000백만원(최우수 300, 우수 각 200, 장려 각 100)
 - 시 상 금 : 29백만원(최우수 10, 우수 각 5, 장려 각 3)
 - 민간분야 : 재배분야 3점(최우수 1, 우수 2)
유통·관측분야 3점(최우수 1, 우수 2)

7.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

7.1 전라남도 농업인 교육정책 방향

시장개방의 가속화와 소비구조의 변화, 농촌사회의 공동화, 활력저하로 인하여 전남 농업·농촌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 이는 DDA 와 FTA확산으로 인하여 기능성, 친환경농산물을 선호하여 가격중시에서 품질, 안정성으로 소비자의 선호도가 바뀌고 농업수입의 주요 감소요인인 대동물(한우, 돼지 등) 산지판매 단가 하락과 사료 값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있다. 또한 농가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노령화, 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교육·복지·생활 여건이 열악하여 전남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의 고충은 날로 더 심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전남도에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차원의 지원을 확대하여 농업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 삶의 질을 향상 시키며, 농업과 농촌을 이끌어 갈 정예 농업인력 5만호 육성방향을 정하고 있다. 이는 신규인력(창업후계농, 신지식 학사농 육성 등)의 유입과 대체인력 육성(귀농정착 지원 및 유입 프로그램 개발), 기존 인력 정예화(지역농업특성화교육)의 3가지 방안으로 접근하고 있다.

특히, 농업교육의 문제점으로서 품목별 전문교육 기반 취약, 품목별 단체의 품목교육은 초기수준이며 공급자 중심으로 컨설팅 업체도 난립할 뿐 더러 특정 분야에 너무 편중, 둘째, 정보와 자원의 연계 결여. 사업과 교육, 지도사업의 연계가 미흡하고 교육기관 간 협조가 부족하여 교육 인프라 취약 및 평가체계 또한 미흡, 셋째 학교 교육의 기여도 미흡과 농과대학의 생명과학 등으로 탈농 경향을 보이며 농업계학교 졸업자 영농정착률도 5%미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남도는 공공기관 중심교육을 민간주도 형식으로, 이론·집합중심 교육을 현장중심 신기술도입 교육으로, 일반적인 또는 평균적인 교육을 맞춤형 전문교육으로, 생산기술 중점 교육에서 품질 및 안전성, 조직화, 브랜드화 중심 교육으로 변혁을 추진하고 있다.

표 4. 전남의 농업인 교육 방향

정부 직접 수행 [후계 농업인력 육성]	민간 주도 수행 [맞춤형 전문교육]
선 교육 후 창업농 선발지원	품목 전문교육 : 생산자 단체
후견인제로 안정적 정착 유도	특성화 교육 : 지역교육협의체
산업기능요원 제도 운영	특수 전문교육 : 농업인 단체
학교 농업교육 지원	브랜드육성 교육 : 브랜드 조직

전남의 농업인에 대한 교육은 현재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원, 농협, 농업관련대학, 민간농업인단체 등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5년도 까지는 도 단위를 중심으로 한 최고농업경영자과정에서 지역별 리더자 중심으로 교육을 이끌어왔으며 그 외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협, 민간농업인 단체에서 일회성 교육이 이루어져 왔다.

이에 2006년, 농림부의 농업인 교육방향이 지역별로 특화된 맞춤형 교육을 목표로 지역별 지역농업특성화교육 정책에 따라 기존의 교육과는 달리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수동적인 참여방식에서 능동적인 교육방식으로 교육방식에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맞춤형 교육의 기본방향을 지역 경제품목 및 브랜드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교육 및 농업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지역 주력품목 농업인 대상 경영능력 향상 및 품목 기술, 지역농업 발전과 연계된 농촌관광사업 관련 교육, 주요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농가조직화 및 품질관리 교육을 현장중심교육 및 소그룹 단위 토론회로 농업경영환경 성격을 반영하여 현장실습, 현장견학, 현장지도 및 컨설팅, 워크샵, 해외 선진지 연수, 해외컨설턴트 초빙교육, 스터디그룹

운영 등 교육성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방법 활용한다는 것에 방향을 두고 있다. 또한 기존의 경영자과정의 교육대상자(중농이상의 경영규모기술을 갖춘 농가)를 포함하여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의 리더, 브랜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를 더욱 육성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7.2 전라남도 농업인 교육 실적

7.2.1 최고농업경영자과정(~2006)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의 기본목표는 농민후계자, 농촌지도자, 현장 농업경영자를 대상으로 작목별 농업지식 및 영농방법, 첨단농업기술, 혁신적인 농장 경영기법, 최신농업정보, 농가 경영·경제지식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킴으로써 무한경쟁시대에 경쟁력 있는 지역농업을 개발하고 선도할 수 있는 농업전문경영인을 육성하는데 그 목표를 설정하고 1994년부터 추진되어 왔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의 특성은 전공분야별 첨단 농업기술을 통한 농장경영 설계, 경영진단기법 그리고 농산물 가공·마케팅 등 컴퓨터 활용능력을 습득케 함으로서, 정보화시대의 농업전문 경영능력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데 있었다. 또한, 농업에 관한 정보처리 기술을 익히게 하며, 대학과 지역사회의 여러가지 시설과 자원을 활용하여 교육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교육과정은 전공과목, 전공공통, 현장실습 및 컨설팅, 정보화교육, 그리고 국내연수, 해외연수 등을 통한 종합적인 소양을 가진 농업전문인을 육성하며, 강사요원은 주로 해당분야의 권위있는 전문교수와 현장경험자로 구성하였다. 교육방법은 강의, 실습, 현장견학 및 컨설팅, 사례발표 등으로 진행하며, 현장견학은 전공분야별 국내의 선도 농가 견학, 교육비는 농림수산식품부와 전라남도의 지원으로 추진되어 왔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은 전남에 위치한 3개의 국립대를 중심으로 축산, 과수, 채소, 특용작물, 농법 등 품목별 지역리더를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으로 1993년부터 2006년까지 2,524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현재, 배출된 수료생들은 연도별로 동호회를 조직하여 1기부터 12기까지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으며 각 기의 동호회 간에 상호 새로운 농업관련 기술정보를 공유, 제공하고 있으며 하고 있으며 이 과정을 수료한 선도농업인들은 후기 수료생들에게 좋은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표 5. 전남권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개요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수료 인원	기 간
전남대학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1,004명	1994년 ~2006년
순천대학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1,143명	1993년 ~2006년
목포대학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377명	1997년 ~2006년
계		2,524명	

또한,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이외의 교육과정 실적으로는 대학, 농협, 시군 기술센터, 지자체 등 농업인관련 기관에서 농업인 교육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은 총 교육시간이 20시간 이내의 일회성 교육으로 교육인원도 소수이며, 반복적인 이론 중심의 학습이라 할 수 있다.

표 6. 전남권의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외 교육실적

기관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실적 (인원: 명)
전남대학교	농촌정비 교육	2006~현재	75
순천대학교	영농후계자 교육	1980~1995	510
	새마을 지도자 교육	1975~1985	500
	몽골농업연수생 연수교육	1998~2006	79
	바우처 교육	206~2007	150
	농산물 유통 교육	1997~2007	70
농협	친환경 인증농가 양성 외	~2008 현재	500~
각시군 기술센터	새마을 지도자 교육 외	~2008 현재	1,200~
나주시	지역농업입학 초급(회원농가, 희망농가)	2008	300
	후보농가 교육 초급 (희망농가)		100
	회원농가 교육 중급 (희망농가)		320
	리더농가 교육 고급 (작목반장 총무)		50
	기술컨설턴트 양성교육 전문(농협지도사추천농가)		20

7.2.2 전남지역농업특성화교육사업(2006~현재)

전남지역농업특성화교육의 기본방향은 전남지역 특화품목, 주산품목의 친환경농업 확대, 수출농업 확대를 통하여 지역농업 소득을 안정화하고, 지속 발전 가능한 농산업 육성에 기여하며, 특화품목 생산자조합의 조직화를 위하여 안정적인 지역리더, 기술리더 양성프로그램 구축으로 광역브랜드화를 위한 기반조직 강화하는데 두고 있다.

전남지역농업특성화교육 사업은 2006년 전남대학교, 전남농업기술원, 한국온실작물연구소 3개 기관이 참여하여 시범적으로 운영되었으며, 2007년

순천대학교, 목포대학교가 참여하여 총 5개 기관이 지역교육협의체로 하나의 사업단, 사단법인 전남지역농업특성화교육사업단을 설립하였다. 그에 관한 조직과 개요를 살펴보면 그림 2과 표 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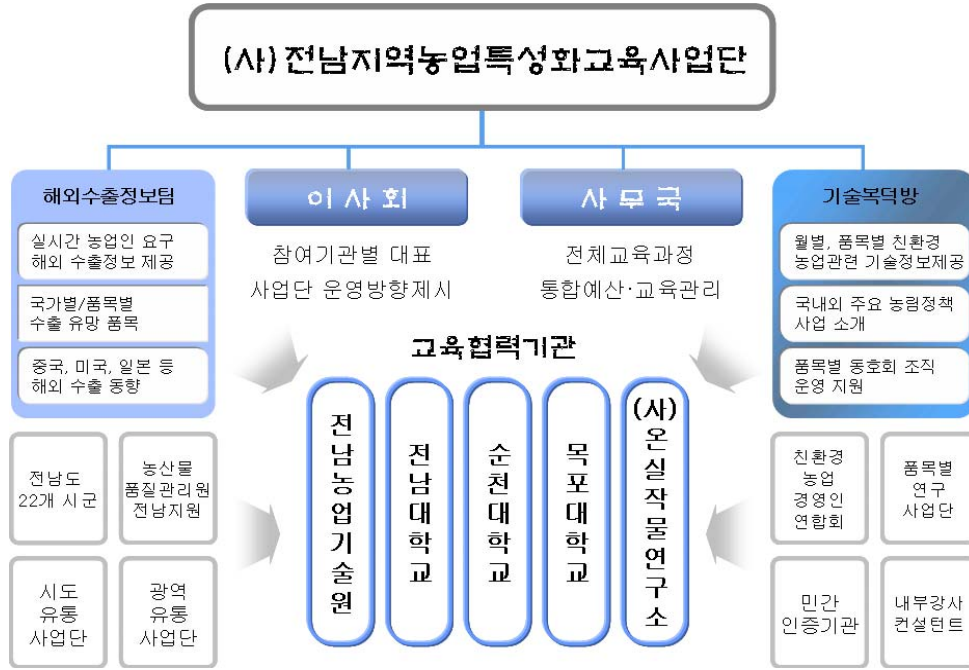


그림 2. 전남지역농업교육사업단 조직도

표 7. 전남지역농업교육사업단 개요

구분	내용
사업총괄	농림수산식품부, 전라남도
교육주관	(사)전남지역농업특성화교육사업단
교육협력체	행정기관(전남농업기술원), 대학기관(전남대, 순천대, 목포대), 민간단체(한국온실작물연구소)
지역협력체	전남대 친환경연구사업단, 전남친환경쌀클러스터사업단, 전남녹차클러스터사업단, 시설오이특화사업단, 국화특화사업단, 쌀특화사업단, 배특화사업단, 농협광주전남지역본부 등
교육훈련 규정 제정 및 관리	(사)전남지역농업특성화교육사업단 정관
의사결정기구	이사회(이사 6명) 2007년 7월 24일 (사) 전남지역농업특성화교육사업단 설립인가
감사	자체감사 2, 전남도 감사단 등
운영위원회	사업단장, 사무국장, 분과교육장, 도의회의원, 농업인단체
사무국	사업단장(1), 사무국장(1), 사무요원(2)

전남지역농업특성화교육의 장기적 교육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화품목을 중심으로 한 정예인력, 농가조직을 양성. 시군별 1~2개, 전남 22개 특화품목

을 대상으로 시군별 연합사업단을 조직하여 개소당 20명씩, 전체 500개소로 교육 후에도 사후관리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지속적인 기술경쟁기반을 확충, 둘째 친환경 수출농업형 광역브랜드 육성. 친환경농산물 광역브랜드는 무농약인증 이상 전문화된 브랜드, 수출전략품목 브랜드(파프리카, 멜론, 토마토, 양돈, 인삼, 버섯 등)로 친환경농산물 집적화단지 및 수출전략저점단지 육성기반 구축하며, 소비자 신뢰농산물로 안전성을 구축하기 위해 GAP, GMP, 생산유통이력제를 획득, 셋째 연간소득 1억원이상 농가 1,000호 달성. 2006년을 기준 전남에 100농가가 있었다면 2013년까지 1,000호를 목표로 고소득 농가 양성, 넷째 가공산업 기술 심화교육으로 지역농업의 농산업화 추진 및 신선편이 가공제품(배로와인, 아이스홍시감, 컷트멜론, 멜론주, 멜론아이스바, 컷트과일 등), 냉동건조분말 식품 (죽로차, 도선차, 연잎차, 감잎차, 뽕잎차 등), 전통발효식품 (김치류, 장류식품 등)으로 가공산업 기술에 관한 심화교육을 통해 농산업화를 달성, 이라고 하는 목표하에 2008년에도 교육에 임하고 있다.

전남에 있어서 2006년 시범적으로 시행된 특성화교육은 총 9개 품목 16개 반으로 중농이상의 규모를 갖춘 농업인,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수료생을 비롯한 집중심화교육을 필요로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총 180명 입학하여 PTC+ 위탁교육반(수출 파프리카)을 제외한 나머지 15개반은 주1회 6시간, 4주 집중 심화교육으로 운영되었으며, PTC+ 위탁교육반(수출 파프리카)은 사전교육1일 제외하고 네덜란드 현지 교육기관에서 7박8일 현지교육을 이수하였다(표 8). 15개반은 4일 집중 심화교육 후 품목별 선진지 견학(표 9)을 통해 선진기술을 습득하고 이러한 과정을 수료한 수료생은 사후관리(현지컨설팅, 동호회, 피드백연구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8. 2006년 전남지역농업특성화교육 실적

구분	과정명	입학생	수료생	실적 (단위:%)
채소	딸기반	10	10	100
	오이반	10	10	100
	토마토반	10	10	100
과수	배1반	10	9	90
	배2반	10	8	80
화훼	국화반	10	10	100
	장미반	10	10	100
축산	한우1반	10	10	100
	한우2반	10	10	100
농촌관광	농촌관광반	10	10	100
쌀	쌀1반	10	9	90
	쌀2반	10	9	90
특작	버섯반	10	9	90
PTC+	PTC+위탁교육(파프리카)	10	9	90
벤처농업	벤처1반	20	20	100
	벤처2반	20	19	95
계	16기	180	172	95.31

표 9. 2006년 전남지역농업특성화교육 해외연수 실적

구분	채소	과수	화훼	축산	농촌관광	쌀	특작	PTC+
기수	딸기 토마토 오이	배1기 배2기	국화, 장미	한우1기 한우2기	농촌관광 1기	쌀1기 쌀2기	특작 1기	PTC+1기 (파프리카)
인원	7	13	6	15	4	10	5	9
장소	유럽	일본	중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네덜란드
계	69명							

2007년도의 특성화교육은 기존 2006년도의 문제점을 보완, 주1회 6시간, 4회 단기교육을 주1회 또는 2회, 10주~30주, 1일 5시간 교육으로 최소 교육시간 단위가 50시간~ 최고 150시간 교육으로 다양화 되었으며, 이론보다 실습 현장위주의 교육시간을 증가시켰다. 또한 본격적인 사후관리시스템 가동으로 동호회를 통한 교육생의 조직화를 기반으로 즉각적인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해 주었고, 사후 현장컨설팅 및 피드백연구를 추진하여 33개반 중 17개반이 6농가씩 현장컨설팅으로 102농가가 농가애로사항을 해결에 도움을 주었다. 또한 2006년 반별 10명 모집에서 20명 변경하여 모집을 계획하였는데 660명 계획인원보다 많은 711명이 입학하여 652명이 수료하였다(표 10). 수료생이 목표하였던 100%에 도달치는 못하였지만 당초계획인원에 99%의 정예인력을 배출하였다고 자평하고 있다. 또한, 2007년도는 2006년과 같이 33개반 711명 중 반별로 우수교육생 50%를 선발 또는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해외선진지 교육을 실시하였다. 채소과정 9명, 쌀/특작, 화훼 등 169명, 농촌관광, 과수 외 137명, 표고버섯반 싱가포르 10명으로 총325명이 선진기술을 습득하였다(표 11).

표 10. 2007년 전남지역농업특성화교육 실적

구분	전남대학교	순천대학교	목포대학교	전남농업 기술원	한국온실작물 연구소
입학생 수	259명	188명	60명	80명	124명
수료생 수	238명	163명	58명	75명	118명
교육과정	◆30주과정 5개반 ◆10주과정 7개반	◆26주과정 5개반 ◆10주과정 3개반	◆22주과정 2개반 ◆10주과정 1개반	◆10주과정 4개반	◆10주과정 6개반

표 11. 2007년 전남지역농업특성화교육 해외연수 실적

	유럽	중국	일본	기타
교육생 수	9	169	137	10명(싱가폴)

이상과 같이 2006년 특성화교육 대비 2007년도의 특성화교육 실적은 친환경농업 기술리더 양성면에서 5.5배 이상 증가하였고, 수출농업 기술리더 양성 실적에서는 4.4배 이상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2006년 대비 2007년 전남지역농업특성화교육 실적

년 도	교 육 대상자(A)	친환경농업 기술리더(B)	수출농업 기술리더(C)	B/A (%)	C/A (%)
2006(C)	172	36	17	20.9	9.9
2007(D)	660	198	76	30.0	11.5
D/C (%)	393.7	550.0	447.1		

한편, 2008년도는 현재 11개과정 31개반으로 697명 모집에 635명 선발되었다. 올해는 10주에서 25주까지 편성되었고, 현장위주교육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교육관리에 관한 시스템이 더욱 강화되었다. 또한 이전과 달리 반별, 품목별 해외선진지 견학을 가지 않고 도별 최대 3개팀(광역브랜드 포함)으로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현장중심의 해외 선진교육을 제공 할 계획이다.

표 13. 2008년 전남지역농업특성화교육 과정별 운영현황

교육과정	작목	모집	선발	교육장소	입학일
고품 시설채소 작목	구례오이 기술리더반	20	20	한국온실작물연구소	5월중
	대숲토마토 기술리더반	20	20	한국온실작물연구소	5월중
	담양딸기 기술리더반	20	20	한국온실작물연구소	5월중
	곡성멜론 기술리더반	20	20	한국온실작물연구소	5월중
	수출파프리카반	20	20	전남농업기술원	4.14
	무안황토양파반	22	22	목포대학교	4.30
	시설원에 사이버경영반	20	20	순천대학교	4.24
고품 과수작목	GAP장/핵과류 생산·가공반	32	32	전남대학교	5.21
	친환경 무화과반	21	21	전남농업기술원	4.30
	친환경 석류반	20	20	전남농업기술원	4.30
	친환경 매실반	20	20	전남농업기술원	4.30
	친환경 유자반	22	22	전남농업기술원	4.30
친환경 축산작목	친환경브랜드한우반	29	27	순천대학교	4.30
	친환경축산반	22	22	전남대학교	4.17
	녹색한우 광역브랜드반	24	24	전남대학교	6월중
	진도개명품반	22	22	전남대학교	6월중
고품 특작과정	명품브랜드 쌀반	20	20	전남농업기술원	4.30
	고품 새송이버섯반	18	18	전남대학교	4.23
	고품 청정인삼반	20	20	순천대학교	4.24
	친환경 생약초반	21	21	전남농업기술원	4.30

차 가공	녹차 발효차 브랜드반	52	26	순천대학교	4.24
농산가공	농산가공 브랜드개발반	43	28	순천대학교	4.24
	고급브랜드 치즈전문가반	20	20	순천대학교	4.24
경영유통	경영유통 전문가반	39	25	순천대학교	4.24
	농업경영체 경영마인드 제고반	5	5	전남대학교	추가모집중
화훼과정	현장발굴형 화훼·자생식물 개발반	15	15	전남대학교	5.17
	수출국화반	21	21	목포대학교	4.30
그린투어	녹색농촌체험관광반	26	25	순천대학교	4.24
	그린투어리증반	8	4	전남대학교	추가모집중
벤처농업	기능성농산물, 기능성식품반	5	5	한국온실작물연구소	추가모집중
기타	농촌여성인민자과정	30	30	전남농업기술원	미정
계		697	635	5개 기관	

8. 전라남도 농업인 교육에 있어서 문제점 및 육성방안

8.1 전라남도 농업인 교육에 대한 문제점

미래의 농업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현재 직면하고 있는 전남 농업의 문제점을 파악, 문제점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전남 농업의 발전에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이에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던 전남농업인 교육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서 파악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에 전남도 농업인 교육프로그램으로 정착되어 온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이 정부보조금이 중단과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2007년 말 기준으로 폐지되고 지역농업특성화교육사업에 흡수 통합되면서 이 과정을 수료한 교육생(3개 대학 약 2,500여명)의 구심점이 없어짐에 따라 교육 불신감이 고조되고 있다. 즉, 1993년부터 이어온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동호회 조직에 속한 지역리더들은 신기술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지만 구심점이 되었던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이 폐지됨에 따라 수료생들이 불안 해 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새롭게 탄생 된 지역농업특성화교육사업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 전라남도의 대대적인 홍보에 없었음에 따라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신청에 관하여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농업특성화교육사업이 다른 농업인단체나 기타 지자체 등에서 이행해 온 일회성 교육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차원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여 진다.

둘째, 농림수산식품부, 전라남도 뿐 만 아니라 각 시군 기술센터에서 교육안내 홍보가 되지 않은 곳이 적지 않게 발생하여 교육을 꼭 받고자 하는 교

육수요자들의 피해가 속출하여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각 도별 사업단에서 전라남도로, 전라남도에서 각 시군으로 모집에 관한 홍보물이 발송되나 아직 지역특성화교육에 관한 정확한 인지를 가진 농업인관련 교육공무원들이 많지 않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곳이 종종 발생하여 농업인후계자, 귀농인 등 교육을 필히 받고자하는 농가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므로 교육신청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교육프로그램은 현장 실습위주로 다수 변경되었지만 현장 실습장소의 교육관련 기자재, 시설면에서 매우 미흡한 곳이 대다수이다. 이에 따라서 교육을 이수한 후 실제로 농가에서 신기술을 접목하기 어려운 부분이 다수 발생하여 농업인 리더 양성 계획에 다소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하겠다. 실제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선 이론보다는 실제 농가에서 접목할 수 있는 현장위주의 실습을 많이 하라고 강조하지만 실습재료비(저가의 재료)를 제외한 기자재 구입이 불가하다는 지침이 하달됨에 따라 정말 중요한 작업을 요구하는 실습은 가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대다수이다. 다소나마 농업관련대학, 시군 기술센터에 관련 장비나 기자재를 보유하고 있을 시엔 사용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그림을 통한 학습으로 만족하여야 함이 현실이라 하겠다.

넷째, 전남도가 지향하는 수출농업 품목교육(파프리카, 토마토, 멜론, 양돈)과 생물농업 품목교육(생약, 버섯, 녹차, 특작 및 기능성농산물, 기능성식품) 및 특화품목 중심의 친환경농업교육 등 실천교육과정의 체계화 미흡으로 리더급 프로농업인 양성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상기와 같은 문제점 이외에도 실제로 전남도에 속한 농가들이 농업인교육을 받은 적이 있으며, 받았다면 어떠한 교육을 받았었는지 전체 전남 농업인에 관한 교육 수요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정확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농업인 교육에 관한 통계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빨리 품목별로 교육수요자를 찾아내고 그 수요자들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계획되어져 해당 농민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제외하고는 현재 교육과정에 관한 간략한 안내문구만 보고 지원하려는 농가들이 상당 수 있어 교육을 받고자 하는 의지는 강하지만 실제로 교육을 받게 되면 교육을 잘 따라가지 못해 뒤쳐짐으로 인하여 오히려 농사 짓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인식도 안고 있는 점도 중요한 지적이라 할 수 있다.

8.2 전라남도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육성방안

농업인 교육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언급된 주요 쟁점에 대해 그 개선방향

을 모색,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전남도 농생명산업 발전은 물론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많은 기여가 예상되며, 다가오는 서남해안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으로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

첫째,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은 농업을 처음 접하는 퇴직자, 귀농인 및 영세농업인을 대상으로 아주 기초적인 농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초반 성격으로 운영하도록 과정을 다시 부활해 봄도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예산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타 도의 사례를 적용, 전라남도 50%, 자부담 50%로 이 교육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진다. 또한, 지역농업특성화 교육사업은 농생명산업을 담당하는 심화과정의 전문 리드 그룹으로 양성시키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와 전라남도의 협조아래 꾸준한 홍보와 꾸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지역농업특성화교육에 관한 홍보 미흡 또는 인지 부족으로 인하여 정말 교육을 필요로 하는 농민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는 자세히 살펴보면 시·군에서 성실히 협조를 이행한다고 하여도 시간을 내기 힘든 농가의 경우 매번 시·군 방문이 힘들기 때문에 결국 시군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따라서 전남도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군에서 교육 수요조사를 이행하고 그 농가에 대한 기본 인적사항 리스트를 지역농업특성화교육사업단에 전달하여 사업단에서는 이 리스트들을 품목, 교육수준, 지역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정리한 데이터를 가지고 운영위원회와 논의한 뒤 지역농업특성화교육이 필요한 농가는 지역농업특성화교육 모집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해당농가에 직접 문자메세지 또는 안내 우편발송을 하고, 지역농업 외 농업관련기관의 교육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지는 농가(기초적인 농업지식이 부족한)는 각 시군 기술센터 또는 농협, 민간농업인단체에 교육생 정보를 전달하여 공유토록 한다. 또한 수수료생에 관하여도 DM을 발송하여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에 관한 정보를 제공토록 한다.

셋째, 현재 대부분의 교육이 현장 실습 위주로 운영되어지고는 있지만 실제로 교육생들이 배운 이론을 실습해 볼 수 있는 현장실습 장소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농업관련대학, 농업기술센터 등은 기초적인 농기계와 기자재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 외 기관에서는 농업인 교육을 위한 기자재 확충이 어려운 실정이다. 물론 모든 교육현장마다 기자재를 들여놓는 것은 무리일 것으로 보이나 현장실습장이 없는 교육기관에서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 실습을 간다고 하더라도 현재 정확히 배운 대로 실습할 수 있을 만큼 체계적으로 기자재를 보유한 실습 장소는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정부에서 말하는 현장위주 교육을 보다 많이 시행하기 위해서는 실습 시설 확충이 보

다 더 필요하다. 이는 정부와 도에서 고려하여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교육으로 굳이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국내에 있는 농업관련 연구센터와 협력하여 보다 나은 기술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지역농업특성화교육과정은 전남도 대표 수출농업 품목교육(파프리카, 토마토, 멜론, 국화, 양돈), 생물농업 대상품목교육(생약, 버섯, 녹차, 특작 및 기능성농산물, 기능성식품) 및 특화품목 중심의 친환경농업교육 등 실천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리더급 프로농업인 양성하는 것이다. 2007년도부터 지역농업특성화교육에서는 품목별 집중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생물식품산업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유기농산물과 슬로우푸드(Slow food, 된장과 젓갈 같은 향토식품)를 생물식품산업화로 연결시키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

다섯째, 은퇴자, 귀농인력을 전문가 리더교육 참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신활력사업, 살기좋은지역만들기 등 농촌에서 시행되는 각종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고 애로사항이 인력문제이다. 고령화된 인력만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에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은퇴자 및 귀농인력들이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각 시군에서 인센티브제도 도입이나 각종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이들이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을 수강하는데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교육 후에 일정 역할을 담당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귀농인력 중 귀농홍보대사(품목별, 지역별)를 위촉하여 전국적으로 귀농인력이 전라남도에 올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한다. 국민소득 증대와 더불어 농업·농촌에 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남은 전국 제일의 농도일 뿐만 아니라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고, 전국에서 농지가격이 제일 저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수도권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귀농하기엔 최적의 자연, 사회환경을 보유하고 있다.